



코스피 2493.97 (0.00)	코스닥 894.43 (0.00)
금리 (미국 3년) 2.28 (+0.01)	환율 (원-달러) 1066.20 (+0.80) (16일)



[뉴스]
외국인 매수나선
삼성전자
이번주 주총
02·03

‘130조 큰손’ 배당·지배구조 등 시어머니 역할 강화

NPS포심 어디로? 살얼음 주총

(국민연금)

연내 스튜어디스십 코드 도입
의결권 행사 강화 몰두
이사 선임 등 영향 주목

#. 오는 23일 열리는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융권의 이목이 최대주주(9.44%)인 국민연금에 쏠려 있다. 3연임을 목전에 둔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의 앞길에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은 것이다. 지난 1월 하나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김 회장을 추천했다. 그 결과 현재 김 회장은 주총에서 단독 사내이사 후보로 올라왔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 간 찬성-반대 표가 엇갈리는 가운데 외국인 지분이 많은 하나금융의 경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표심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기 주총 시즌을 앞두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130조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행보에



국민연금공단 전경.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최근 올 하반기 스튜어디스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해 배당 정책 강화 등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반대 비율은 16.6%로 전년 14.23% 대비 소폭 증가했다.

◆ 국민연금, 스튜어디스십코드 도입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삼성

물산-제일모집 합병 건으로 흥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의 합병 건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최순실 게이트’ 논란에 휘말렸다.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 같은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민연금 국정감사를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합병,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등 의결권 의사결정에 있어 공단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이에 연내 스튜어디스십 코드 도입을 골자로 한 의결권 행사 강화 및 지배구조 개편안 마련에 몰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은 투자자 가치의 향상을 적극 추구하는 것”이라며 “이번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진 선임 등 의결권 행사에 있어

무적 실적은 물론 회사 지배구조 및 사회적 가치 수행 등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의결권 행사 독립성 강화

당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6일 2018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부의 요구권(위원 3인 이상 요구 시)’을 주는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위원회는 의결권 전문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이사 선임이나 합병 등 주요 주총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중립 등 의사결정권을 전문위에 넘겨야 한다.

의결권 전문위는 지난 2006년 설치된 외부기구로 임기 2년의 위원은 정부 추천, 사용자 대표 추천, 근로자 대표 추천, 지역가입자 대표 추천 각 2명과 연구기관 추천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2면에 계속)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디에이치 자이 개포’ 모델하우스, 끝없는 대기 행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내 ‘디에이치 자이 개포’ 모델하우스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방문객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신규주택 ‘핫’ 기존 ‘꽂꽂’ 서울 아파트 시장 양극화

재건축 단지 매수세 실종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신규 분양 아파트 시장은 뜨겁다. 하지만 재건축 등 기존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실종돼 꽂꽂 얼어 붙고 있다.

지난 주말 ‘로또 아파트’로 관심이 집중된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개포 주공8단지) 견본주택에는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1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16~17일 이들 동안에만 디에이치 자이 개포 견본주택에는 2만 7000여명이 몰렸다. 과천 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과천 위버필드’ 견본주택에도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관련기사 8면)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된 디에이치 자이 개포 아파트의 경우 당첨만 되면 5억~7억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청약자가 대거 몰릴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 전용 84㎡의 경우 10억원 안팎의 현금이 필요하다.

이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았던 한 수요자는 “고층부의 경우 당첨될 경우 수 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저층부의 경우 동간 거리가 짧아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청약통장을 써야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신규 분양 아파트 시장이 뜨거

운 반면, 기존 아파트 매매 시장은 썰렁하다.

특히 초과이익환수제 등 악재가 터진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매수세가 실종됐다. 일부 매물은 1억~2억원씩 하락했지만 매수 문의가 없는 상태다.

실제로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다음달 초 관리처분인가 승인이 날 예정이지만 매수세가 자취를 감췄다. 전용 42㎡의 경우 올해 초 15억4000만~15억5000만원을 호가하던 것이 14억8000만원 선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다. 최근 6000만~7000만원 내렸으나 거래가 안 된다.

개포동의 인근 중개업소 사장은 “관리처분인가 날짜가 잡혀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것이 확실하고 급매물도 나오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도 최근 호가가 5000만~1억원 이상 내렸지만 거래가 뜸하다.

안전진단 강화 조치의 직격탄을 맞은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3단지과 11, 12단지 등지에는 2000만~3000만원 가량 내린 매물이 등장하고 있지만 매수 문의는 뜸한 상태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주택도 시보공공사(HUG)의 분양가 관리로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새 아파트 청약에는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지만 기존 아파트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평창동계패럴림픽 폐막 마지막까지 선전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이 18일 오후 8시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사진은 폐막식 당일 강원도 평창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스키 10km 오픈 계주에서 한국 첫 주자로 나선 신의현이 선수 교대를 마치고 관중에게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통장’ ISA의 골육... 장점은 별로, 규제만 잔뜩

도입 2년... 갈수록 가입 줄어
가입대상·비과세 혜택 늘려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국민통장’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다. 올 연말 일몰을 앞둔 ISA가 실패한 세제혜택 상품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SA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가입대상과 세제혜택 확대가 꼽힌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ISA 가입자수는 전월 대비 1만4661명 줄어든 210만5300명으로 집계됐다. 상품 출시 후 6개월 새 240만명을 넘어섰던 가입자가 꾸준히 줄어 들고 있는 것.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말(12월 31일)에 만료되는 ISA 비과세 혜택이 추가 연장 없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가입대상 확대해야”

정부가 지난 2016년 ‘서민 재산 증식’을 목표로 내놓은 ISA는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은 상품이다. 계좌 수익 가운데 일부가 면세혜택을 받는다. 수익률도 최근 깜짝 성적표를 내놨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1월 말 기준으로 일임형 ISA의 1년 수익률은 9.49%로 나타났다. 3개월 수익률은 평균 11.8%에 달한다.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 대부분의 자금을 국내의 주식 등에 투자하는 초고위험 ISA 수익률은 무려 18.84%에 달한다.

문제는 금융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은 최근 수익률이 좋지만 가입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신탁형(개인이 상품을 선택)은 그렇지 못하다.

최근 ISA 가입자 수가 하락세인 이유는 가입 대상 제한도 원인이다. ISA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은퇴자나 주부 등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다. ISA 가입자 중에는 60세 이상이 전체의 20%를 차지하지만 은퇴시기와 맞물리면서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신탁형 수익률도 호조를 보여야 하는데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 비교해 수익률이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일본은 모든 투자수익 비과세”

ISA의 세제혜택도 투자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진국 ISA 제도와 비교해도 한국형 ISA의 혜택은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ISA의 비과세 한도는 서민형 500만원, 일반형 300만원이다. 서민형을 기준으로 5년간 ISA를 투자해 500만원의 차익을 얻게 됐다면 이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15.4%)가 면제된다. 약 77만원의 세제혜택을 보는 셈이다. 이는 투자 한도(1억원)를 파악해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연 5% 이상 꾸준히 수익을 올려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최대치다.

(6면에 계속)

/손영지 기자 sonumj301@